2022.01.10. NO.699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A Banker's Secret

A Banker's Secret, 얼핏 이름만 들으면 은행이나 적어도 금융계열 회사일 것만 같다. 하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베트남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로컬 천연 화장품 기업의 이름이다. 물론 금융업과 관련은 있다. 바로 창업자인 Nguyen Quynh Le가 전(前)은행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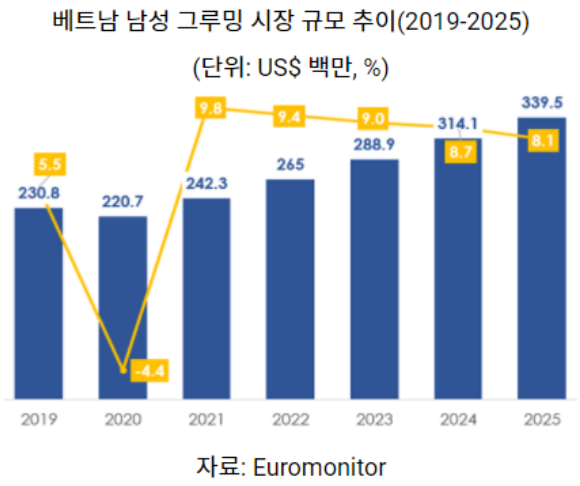
Nguyen Quynh Le는 처음에 단순히 취미로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어 주변에 선물하는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기에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막상 뜯어보자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00%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다 명확한 품질기준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100% 천연제품이면서 정말 자신이 쓸 수 있는 제품으로만 고객에게 다가가면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예상은 적중했다.

그렇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2년 호치민 소재에 창립한 A Banker's Secret은 인체에 자극성이 적은 천연제품만을 100% 고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품만을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천연제품 특성상 최대유통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소문에 힘입어 기존에 천연비누만을 판매하던 것에서 점차 스킨, 포마드, 스크럽, 립밤 등으로 제품군을 늘려갔고 지금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로컬 화장품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A Banker's Secret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남성용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베트남에는 K-Beauty의 영향으로 스스로를 가꾸는 그루밍족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겨냥한 'The Scented Water', 'Shepherd's Phomade'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며 기존의 수입 브랜드가 장악한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크래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출처: A Banker's Secret(링크), OiVietnam(링크)

바뀌는 성관념…커져가는 베트남 남성 그루밍 시장



소득 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 위주로 그루밍에 관심을 갖는 베트남 남성들이 늘면서 관련 시장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Picodi가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 1인당 화장품 구매액은 연평균 173 USD로 이는 여성 구매액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 중 67%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다고 밝혔으며, 구매제품은 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성전환이 법적으로 인정(2015년)되고 남성 뷰티 유튜버 Dao Ba Loc이 유명세를 타는 등 전통적 성관념에 변화가 불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Kotra(링크)

주요기사

보건부, F1의 새로운 정의 발표

보건부가 새롭게 정의된 F1의 확정 조건을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F0(코로나 확진자), F1(확진자의 밀접접촉자), F2(밀접접촉자의 접촉자)로 분류하여 해당자에게 각기 다른 격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F1의 경우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도 가능하다. 이번에 새로 정의된 바에 의하면 F1에는 F0의 감염전파기간 동안 △ 물리적 접촉 △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2m 이내의 거리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15분 이상 대화 △ 개인용 보호용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F0을 진찰 또는 치료한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서 '감염전파기간'이란 F0의 발병일 2일전부터 기산하여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거나 CT값(Cycle Threshold Value)이 30 이상이 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부는 지난달 28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종래의 PCR 검사 외에 간이검사 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의료진의 부담 경감과 함께 감염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Vinahanin(링크), 외교부(링크)

올해 CPI 4% 이내 관리 목표 가능해보여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올해 국회가 설정한 4%이내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데믹발(發) 구매력 저하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는 원유 역시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에 들어가는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BizHub(링크)

베트남 제약회사들의 생존전략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 Traphaco가 한국의 대웅제약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지난달 9일부터 개발 신약의 상업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으로 생산하게 될 의약품은 심혈관질환·당뇨·소화제 등 총 70여 개 제품으로 2025년까지 생산기술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Traphaco는 향후 5년 내 총 매출 13.3%, 세전이익 15%를 각각 증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Taisho그룹이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시가총액 1위 제약회사 DHG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미 올해 100여 개의 의약품을 선보인 DHG는 일본 GMP 기준을 충족한 신약 생산을 위해 2개 라인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부분 최근 베트남 내 수요가 증가한 심혈관질환 그리고 당뇨 관련 의약품이다.

이처럼 현지 제약회사들은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 보다 까다로운 해외 GMP기준 충족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까다로운 현지 진출 규정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원료 확보의 불확실성, 점점 증가하는 수입의약품(2020년 기준 7.4% 성장) 시장은 현지 제약회사들이 각자의 생존전략을 거듭 고민해야하는 위치에 놓여있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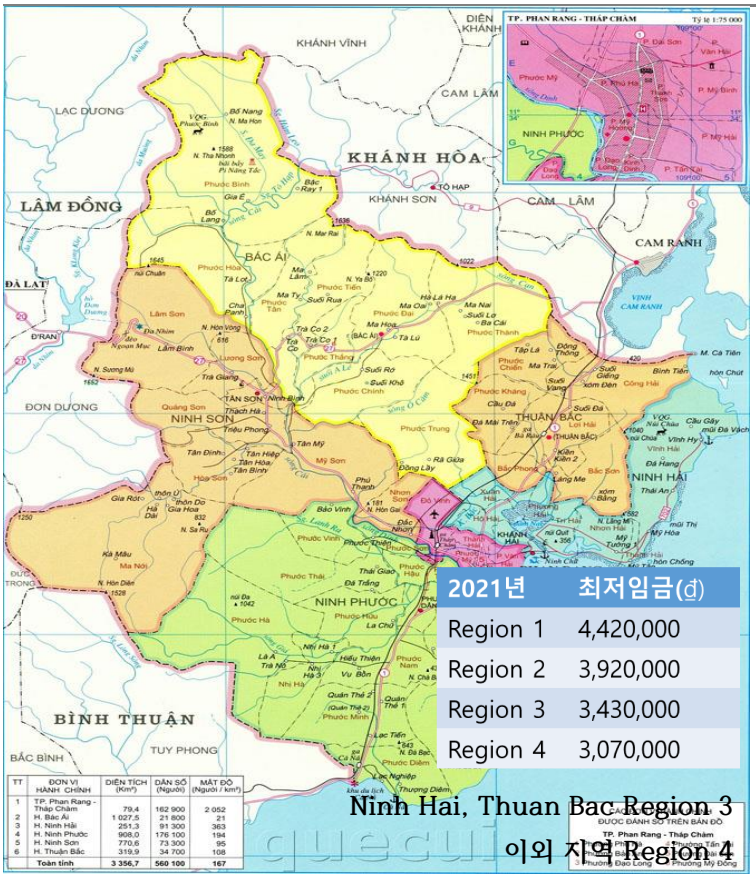
출처: VIR(링크)

금융

새해 첫 거래일 베트남 증시 all-time high 기록

베트남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4일(3일 대체공휴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호치민증시(HOSE)의 VN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7.30p 오른 1528.58로 마감해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1500선 회복과 함께 all-time high를 기록한 것이다. 증시 상승을 이끈 종목으로는 석유 관련 국영기업, 은행, 부동산 업계가 주축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이날 4,310억 VND를 순매수하며 지난달 24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나갔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닌투언 성



2021년	최저임금(₫)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명칭: Ninh Thuận
성도: Phan Rang-Tháp Chàm
교통: 고속국도(1A, 27, 6B, 7, 15, 48A, 48C), 항구(빈빈하이 항, 닌추 항, 꺼나 항), 공항(깜란 국제공항), 철도
GRDP: 10억 5천만 USD (2019)
연평균성장률: 13.9%(2020)
닌투언 성은 인접한 지역의 빈투언 성과 함께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2030년 계획 초안을 보면 2050년을 비전으로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LNG를 적극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이미 작년 6월까지 승인된 프로젝트만 풍력 17개, 태양광 37개, 동기간 총 사회투자자본이 100조~150조 VND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첨단 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67개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요청하는 등 연평균성장률 10~15%를 유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굿모닝베트남(링크)

Du Long 공단

면적: 407ha
입지: Ho Chi Minh city 350km/ Ninh Thuan city 15km/ Cam Ranh 국제공항 40km/ Ca Na 항구 45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25 USD/㎡ (관리비 0.4 USD/㎡/연)
- 전기료: Peak hours 0.1 USD/kWh + Normal hours 0.05 USD/kWh + Idle hours 0.03 USD/kWh
- 물 사용료: 0.4 USD/㎥
- 폐수 처리: 0.28 USD/㎥

출처: Kland(링크)

Phuoc Nam 공단

면적: 369.92ha
입지: Phan Rang - Thap Cham city 15km/ Cam Ranh 국제공항 75km/ Thap Cham 역 15km/ Ca Na 항구 20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25 USD/㎡ (관리비 0.4 USD/㎡/연)
- 전기료: Peak hours 0.1 USD/kWh + Normal hours 0.05 USD/kWh + Idle hours 0.03 USD/kWh
- 물 사용료: 0.4 USD/㎥
- 폐수 처리: 0.28 USD/㎥
- 비고: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출처: Kland(링크)

한국카본(HanKuk Carbon)

세계를 주름잡는 기술력

한국카본이 오랫동안 외국산 수입에 의존해왔던 항공 분야 복합소재 부품 산업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용 바닥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카본이 국내 항공기 부품 공급을 넘어 미국·이스라엘로까지 점차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세계 최초로 무인기를 생산한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미국 보잉사로부터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재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난 수년에 걸쳐 꾸준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삼성重과 공급계약 체결

한국카본이 삼성중공업과 LNG 수송선 및 LNG 추진선의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체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약 1,721억원)를 차지하는 대박 계약에 성공하면서 한국카본의 최근 주가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영향과 세대교체 주기에 돌입한 LNG선 발주량의 장기 호황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보냉재 2차 방벽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한국카본의 저력이 빛나는 대목이다.
출처: 아시아경제(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1984 년 설립된 한국카본은 한국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복합소재 부품 생산업체이다. 카본(Carbon)이 들어간 사명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한 첨단복합소재를 생산한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10 배 강하면서도 무게는 1/4 수준으로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꿈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지재(matrix)와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카본은 바로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는 탄소섬유 프리프레그(수지와 탄소섬유를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함침시켜 놓은 시트 형태의 탄소섬유복합소재용 중간재를 일컫는 말) 산업에서 선두주자격으로, 초기 낚시대와 같은 스포츠 용품 분야에 들어가는 재료를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 건축 분야 프리프레그로까지 발을 넓혀왔다. 이외에도 유리섬유 프리프레그, LNG 단열패널 등을 생산한다.
한국카본의 베트남 진출은 비교적 최근인 2018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중국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포석이다. 생산방식을 기존의 수 시간에서 수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PCM 공법과 같은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대되는 높은 시장전망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소섬유의 국내 수요가 1000 톤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에서의 수요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중 FTA 당시 탄소섬유 복합재가 대중국 관세인하 품목에서 빠지게 되면서 현재 17.5%에 달하는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국카본은 2018 년 베트남 베카멕스-빈프억 공단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면서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노력했다. 동시에 중국·아세안에서 역내 경제권으로 분류되어 무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고려했다. 재작년에는 자기주식 200 주를 처분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술력 유지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으면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복합소재 부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한국카본(링크), 전북일보(링크), 이데일리(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